

# 돼지고기 수출입 및 가격전망



최 동 수 팀장  
(제일제당 육가공업무팀)

## 1. 돼지고기 수출·입 및 가격전망

### 가. 전망

#### 1) 수출

- 일본국내 소비부진으로 기준가격(₩ 548,28/kg, C&F, 기준)이하 수출 불가피.
- 일본의 차액 관세제도를 무시한 저가 부위육(전·후지) 위주의 수출물량 증대.
- '98년 9월까지 과거 주요수출 부위인 등심·안심 수출 부진 → 국내 1차 가공업체 채산성 악화.
- '98년 1년간 국내 업체간 난립수출 → 1차 가공업체 자본력 취약에 따른 저가 지속 수출.

#### 2) 수입

- 일본의 수입량 감소로 국내 반입되는 수입삼겹살의 가격하락으로 일정 물량 수입.
- 국내 소비부진으로 국내산 판가 하락과 동시에 수입육 판가 하락 → 수입육의 경우 원가 수준 판매.
- 기 계약분의 선적 일정 지연 및 계약 포기 예상. → '98년 수입 예상량은 30,000톤으로 '97년의 50% 미만 추정.
- 환율 ₩1,500/\$ 이상시 수입업자 손실 과다 발생.

- 미국/캐나다산 수입단가가 유럽산 보다 고가로 상대적으로 수입량 감소폭이 큼.
- 국내산 삼겹가격 및 시황 고려시 \$30/kg(C&F 기준)이상에서는 수입 채산성 확보 어려움.

### 나. '98년 돼지고기 시장에 나타난 주요 특징

#### 1) 주요 측면

- 갈비 가격 폭락
  - : 국내에서 고가로 판매된 갈비의 극심한 소비 부진으로 2월 가격이 ₩5,500/kg(도매가격)에서 ₩2,500/kg으로 하락됨.
  - 하락의 주 요인은 그간 주 소비처인 식당에서 갈비 외에 전·후지를 대용함으로써 소비자들의 불신과 전반적인 식당 소비감소에 있음.
- 부산물 실 판매처의 이익 확대
  - : 1월~3월 부산물 도매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실 판매처의 판매 가격은 상승함. 또한 소비자들의 선호도 증가로 예년보다 높은 이익을 확보. 그러나 1차 가공업체들의 판매 가격은 4월들어 하락 추세임. 1차 가공업체들의 부산물 가격 하락이 채산성 악화로 이어짐.
- 소비 부진 장기화 가능성
  - : 서울·경기 지역보다 지방에서의 소비 부진이 뚜렷함.

특히 제조업체가 밀집된 공업지역에서의 소비는 극심한 상태. 향후 실적자수 증가 및 구매력 감소로 소비부진은 장기화 조짐을 보임.

○유통 가격 변화

: 예년에는 유통단계별 가격이 확립되어 있었으나 최근에는 가격 구조가 무너지고 있음.

즉, 실 소비자에게 판매할 능력이 없는 중간 유통업체들의 설곳이 없어지고 있다는 것과 도매가격과 소매가격 차이가 줄어들고 있음.

○유통 및 실 소비자층의 재고 감축 및 재고 최소화

: 시중 자금 경색과 맞물려 부위육의 가격 하락으로 실 소비자층이 재고를 최소화하는 경향이 뚜렷해졌음.(이는 일본의 햄·소세지 메이커들도 동일한 양상을 보이고 있어서 국내 수출업체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생고기 시장 정착 가속화

: 1차 가공업체의 원가 경쟁력 확보를 위한 노력의 일환인 동시에 실 소비자층의 재고 최소화 경향, 그리고 소비자층의 생고기에 대한 맛의 인식으로 생고기가 시장에 정착되는 한해가 될 것임.

2) 공급측면

○출하 두수

: 4월 들어서부터는 예년의 일 평균 출하 두수인 4만두 수준에서 출하되고 있어 돼지고기 소비량 감소가 출하 두수 감소량보다 클 가능성이 있어 둔가하락에 심각한 영향을 줄 것임.

그러나 6월부터 출하 두수가 감소가 예상되는 가운데 일정 두수를 처리해야만 하는 가공업체의 현 상황에서는 원료돈 가격은 보합세 유지 예상.

○돼지고기 생산량

: 최근의 가장 큰 문제가 국내 1차 가공업체 대부분이 일정수준 이상의 재고를 가지고 있다는



▲양돈산업이든, 육가공업이든 구조조정은 불가피하게 되었다. 일본이 어설픈 구조조정으로 인해 더 큰 피해를 본 경우가 많았다.

것과, 1월~3월 고돈가시 4월~6월 둔가급등을 예상하여 처리 두수를 증가시켜 비싼 재고 단가의 재고를 처분해야 하는 힘든 상황이라는 것임.

향후 생산량은 출하 두수만큼 나올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갈비, 등심, 안심, 어깨등심의 재고는 체화될 수 밖에 없을것임.

2. 대책

: 생돈이나 부위육에 대한 가격 전망은 의미가 없는 한해라고 생각된다. 최소 2년동안은 해당산업의 생존여부에 더 큰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돼지고기 관련 산업에서 소비부진보다 더 큰 문제가 어디에 있겠는가? 환율 상승이 예견되는 가운데 돼지고기 수입이 어렵게 될 것이라는 단순한 기대가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었다.

양돈산업이든, 육가공 산업이든 구조조정은 불가피하게 되었다. 일본이 어설픈 구조조정으로 인해 더 큰 피해를 본 경우가 많았다.

그리고 구조조정이 이익과 직결된다고는 믿지 않는 것이 좋겠다.

따라서 정부 관련업체 및 그 종사자들의 피나는 노력 없이는 이 위기를 견디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

### 가. 해당기관 및 업체들의 대책

붕괴를 의미한다.

양돈농가	육가공업체	정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품질 원료돈 사육 및 출하 노력 극대화.</li> <li>• 양돈 생산 원가 하락에 집중</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고기 시장 확대</li> <li>• CHILLED 수출 확대</li> <li>• 품질 향상 노력 극대화</li> <li>• 부산물 수출 대비 (대만 W.T.O. 가입시 경쟁력 있음.)</li> <li>• 일본 위생조건 준수를 위한 사전준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련 당사자가 공감할 수 있는 중·장기 방향설정</li> <li>• 양돈 생산원가 이하로의 돈가 하락시 비축 SYSTEM설정</li> <li>• 일본 BUYER요구 수준에 대응할 수 있는 기본 SYSTEM구비를 위한 지원 체계확립.</li> <li>• 통계 자료의 명확성 확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표적 시장가격 설정</li> <li>• 생돈의 육질 및 수율별 가치 차별화</li> </ul>		

극단적인 예로서, 현재의 환율이 ₩800/\$이라면 수입 삼겹의 원가는 ₩3,000/kg이 되고, 이것을 가공업체의 원가 기준으로 한 손익분기점 돈가는 ₩1,500/kg(지육가격)이 되어야 한다.

1995년 MMA물량으로 돼지고기를 수입한지 3년이 경과한 현재 외국의 가공업체는 완벽한 삼겹을 만들어 한국으로 수출하고 있다.

### 나. 대책 수립을 위한 제언

양돈 산업과 육가공 산업은 별도로 분리할 수 없는 산업인 관계로 한 산업의 붕괴는 양 산업의

반면, 일본으로 수출한지 14년이 경과된 현 시점에서 나아진 것이 무엇인지. 누구를 탓하기 이전에 자신을 반성하고, 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한다는 자세로 대책을 수립해 보자. **養豚**

## 용어해설

### 은행 자기자본을 위험가중자산으로 나눈것

#### IMF 이것이 궁금하다

국제결제은행(BIS: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이 국제 금융시장에서 돈을 빌리고 투자하는 은행들이 지키도록 규정한 자기자본 비율을 말한다.

BIS비율은 자기자본을 대출, 외화 자산 등이 포함된 위험가중 자산으로 나눈 비율로 계산된다.

은행이 국제 금융시장에서 정상적으로 영업하려면 최소한 8%의 자기자본 비율을 지켜야 한다. 이를 지키지 못하면 해외

차입자체가 어렵거나 차입하더라도 높은 조달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국내 은행들이 지난 12월 말 BIS 비율 8%를 달성하기 위해 정부의 온갖 대출 압력에도 불구하고 기업 대출을 동결하거나 회수한 것도 이 때문이다.

물론 그동안 국내 은행에도 BIS 비율이 적용됐다.

다만 국내 은행들의 실력을 고려해 대손충당금은 94%, 유가증권 평가손은 50%만 쌓도록

#### BIS비율

하는 '한국형 BIS비율'을 적용한 것이 문제가 된 것이다.

국내 은행들은 국제통화기금(IMF)과 합의한 대로 대손충당금과 유가증권 평가손 충당금을 100% 적립하면 시중 은행 6개, 지방 은행 7개만이 BIS비율 8%를 넘는다.

이에 대해 정부는 지난 5월 10일 BIS비율 산출 시점을 3월 말 기준에서 작년 말 시점으로 소급 적용하고 8%를 채우지 못하는 은행에 대해서는 2월 말까지 충족 방안을 제출하고 6개월~2년 사이에 충족시키라고 지시했다.